



벤츠 더 뉴 EQS



제네시스 G80



벤츠 더 뉴 EQB

“보조금 없어도 괜찮아” 럭셔리 전기차 시장 뜨겁다

전기차가 대세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고가의 전기차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 자동차업계가 보조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럭셔리 전기차 세단을 잇달아 공개하는 등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26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는 최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럭셔리 전기 세단 '더 뉴 EQS'와 컴팩트 모델인 '더 뉴 EQB'를 공개했다.

더 뉴 EQS는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MEA)의 장점을 충실히 반영한 외관 디자인에 다양한 첨단 기술과 디지털 요소를 갖춘 첫 럭셔리 전기 세단이다. 활 형태를 띤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벤츠,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적용 '더 뉴 EQS'·컴팩트 SUV '더 뉴 EQB' 현대차,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공개...SUV 'JW' 연내 출시 예정 테슬라·BMW·아우디 등도 고가 모델 출시 잇따라...치열한 경쟁 예고

첫인상부터 내연기관차와 차별점을 뒀다.

여기에 최대 385kW의 출력을 발휘하는 배터리를 탑재돼 1회 충전시 최대 77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실내에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MBUX 하이퍼스크린'을 적용해 럭셔리 전기차 모델의 특성을 강조했다.

컴팩트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더 뉴 EQB는 66.5kWh의 배터리를 탑재, 더 뉴 EQB 350 4MATIC은 1회 충전 시 WLTP(유럽) 기준 419km 주행이 가능하다. 주행 경로와 환경에 따라 전력 사용과 회생 제동 수준을 최적화해주는 에코 어시스트(ECO Assist) 기능이 탑재된 게 특징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해 1월 컴팩트 순수 전기차 'EQA'에 이어 6월에는 '더 뉴 EQC 400 4MATIC 프리미엄'을 출시하며 전동화 라인업을 확대하는 추세다. 올해 더 뉴 EQA, 더 뉴 EQS, 더 뉴 EQB를 비롯해 하반기 더 뉴 EQE까지 추가로 출시하면서 국내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성장에 적극 동참한다는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현대차 역시 최근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을 공개했다. G80 전동화 모델은 내연기관 기반 G80의 파생 모델로, 1회 충전시 최대 주행가능거리는 427km다.

제네시스는 연내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 기반 중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JW(프로젝트명)도 선보이며 전동화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테슬라를 필두로 BMW와 아우디 등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 역시 지난해부터 1억원대 이상의 전기차 모델을 국내에 속속 선보이면서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혜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고가의 럭셔리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자동차업계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보조금에 구애받지 않는 고가의 전기차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아 K8 한 판 붙자... '형님' 그랜저 나가신다

현대차, 내달 2021년형 모델 출시

기아가 최근 K8(오른쪽)을 출시한 상황에서 현대차가 다음달 그랜저(왼쪽)의 2021년형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돼 준대형 세단의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 23일부터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2021 그랜저 새로운 모델명을 맞춰라!'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벤트가 현대차의 티저 마케팅으로, 연식 변경 모델 출시에 앞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사전홍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해당 이벤트에는 르블랑, 페르소나, 옵티머스 등 3개의 객관식 보기 중에 정답으로 추정되는 르블랑이 가장 먼저 제시돼 있고, 당첨자 수가 511명이라는 점에서 출시 예정일이 다음달 1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의 그랜저는 4년 연속 내수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베스트셀링 모델로, 2019년 11월 출시된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그랜저'는 지난해 14만5463대가 판매됐다.

다음 달 출시되는 2021년형 그랜저는 페이스리

프트(부분변경) 후 나오는 첫 연식 변경 모델로, 현대차가 스포츠 트림인 그랜저 르블랑을 추가해 연식 변경 이상의 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형 그랜저가 출시될 경우 국내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 기아 K8과의 맞대결도 예고돼 있다.

기아가 이달 8일 새 엠블럼이 적용된 첫 모델이자 K7의 후속 모델로 출시한 K8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다. K8은 지난해 사전계약 첫날에만 1만8015대가 계약되며 기아 세단 역대 최다 첫날 기록을 세로 썼고, 12영업일 동안 총 2만4000대가 사전계약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1' 본상

'e-NIMF'·'e-TOPs' 2개 제품

금호타이어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1'(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2021) 운송기기 부문에서 2개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의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이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이다. 올해 68주년을 맞았으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DEA 디자인 어워드 등 세계 3대 디자인상에 포함된다. 수상작들은 디자인은 물론 혁신성, 환경친화성, 완성도, 기능성, 편리성 등의 종합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금호타이어는 미래 지향적 기술력을 담은 컨셉타이어인 에어리스 타이어 'e-NIMF'(eco-friendly, No Inflation, Maintenance Free tire)와 하이브리드 타이어 'e-TOPs'(eco-friendly, Topology Optimized, and Punctureless tire) 등 2개 제품이 수상을 거뒀다.

'e-NIMF'는 은 타이어 내부에 공기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공기압 타이어로 차세대 미래 자



동차 시장을 위한 타이어 제품이다. 비공기압 타이어는 공기압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 안전한 주행이 보장되고, 재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제품이다.

'e-TOPs'는 공기누설을 방지하고, 주행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갖춰 미래 자율주행차의 미래 기술타이어로 적합한 제품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